

<좋은 청년정책 100가지 찾기를 위한 청년·학생과의 대화 ①>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 아침밥!' 정책간담회 실시



-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확대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월 10일 수혜 당사자인 대학생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음.
-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김민석 정책위 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승남 농해수위 간사를 비롯하여 김서원 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이하 ‘전대넷’), 김효경 대학생협 학생위원회 간사,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학생 위원장 등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음. 또한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발표한 제주도청과 적극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해 온 대학생활협동조합 연합회 관계자도 함께했음.
- 김서원 전대넷 의장은 “코로나와 고물가로 학생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원의 아침밥’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정작 정부는 학생들은 대화에서 배제되어 왔고, 재정여력이 가능한 대학에 한정적으로 이뤄졌다”며, “학식 사각지대를 없애고, 대학들이 재정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336개 대학 중 41개 대학만 시행하고, 정부가 고작 천원만 지원해주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늘려 점심, 저녁까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류일순 제주도청 청년정책담당관은 “도내 대학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도비로 2천원씩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반영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전문대까지 포함하여 대학 전체로 확대 △방학기간에도 제공 노력 △지자체 및 대학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 정부 부담 확대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단체간 협의 필요 △학생식당이 없거나 여건이 미비한 대학은 대학주변 식당 이용 쿠폰 제공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제안함.
- 아울러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 예비비를 우선 지출하고 이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전국 대학생들에게 아침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두 끼를 제공하는 것까지 검토하면서 국가적인 정책과 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2023. 4. 10.(월)

 **정책위원회 의장 김 민 석**